

# “가성비·최대 반값”...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본판매

사전예약 이어 실속세트 집중  
이마트, 2~3만원대 상품 확대  
롯데마트, 건강기능식품 혜택  
홈플러스, 행사카드 최대 50% ↓



설 명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고물가 속 가성비 선물세트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본 판매에서도 실속 선물세트를 다채롭게 선보인다. **홈플러스 제공**

설 명절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형마트들이 설 선물세트 본판매에 돌입한다.

16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이날부터 오는 29일까지 본 판매를 진행한다. 행사카드를 통한 최대 50% 할인 혜택과 더불어 결제 금액대별 신세계상품권 최대 50만원을 증정한다.

이마트는 지난 사전예약 기간 1만원 미만의 극가성비 세트 매출이 64.5% 증가함에 따라 본 판매에서도 가성비 높은 실속세트 판매에 집중한다.

먼저 '샤인머스켓 3입'과 '샤인머스켓 4입'을 작년 설 대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각각 행사카드 결제 시 30% 할인한 3만5900원대, 4만5000원대에 판매한다. 또 메론을 혼합해 지난 설 운영하지 않았던 '샤인머스켓&멜론세트 VIP(각 2입)'를 행사가 6만9900원대에 판매한다.

축산세트를 대표하는 한우는 10만원 초반에 기획한 상품들을 선보인다. 대표 상품으로 '한우플러스 소한마리 세트'(1+등급, 1.2kg), '한우 1++ 스페셜 휴파티 세트'(1++등급, 0.9kg)를 행사카드 결제 시 각각 10% 할인한 13만3000원

대, 14만2000원대에 판매한다.

가성비 높은 돈육 세트도 강화했다. 갈비찜용 돼지갈비 1.2kg과 LA식 구이용 1kg로 구성된 '한돈 돼지갈비 모듬세트'는 지난해보다 10% 이상 저렴한 4만5000원대에 판매하고 10개 구매 시 1개를 추가로 증정한다. 또 '남영돈 프리미엄 돼지세트(1.4kg)'를 사전예약과 동일한 6만9800원대에 판매한다.

수산세트에서는 고등어 혼합 세트를 새롭게 선보인다. '제주 옥돔/고등어 세트(1.29kg)'를 행사카드 결제 시 6만4000원대에, '특선 제주갈치/고등어 세트(1.44kg)'는 행사가 9만7000원대에 판매

하며 3개 구매 시 1개를 증정한다.

조미료세트는 2만~4만원 물량을 지난해보다 최대 20% 확대했다. 대표 상품으로 'CJ 특별한선택 스페셜 G호'를 행사가 3만9800원대에 판매한다.

롯데마트도 29일까지 설 선물세트 본판매를 진행한다. 본 판매 기간 행사카드를 선물세트를 결제한 고객에게 최대 50만원의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먼저 대표 축산 선물세트로는 '한우 정육세트 2호'와 '냉장 시즈닝 스테이크 모듬 세트(1.8kg/미곡산)'를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각 9만9000원대에 할인 판매한다. '마블나인 한우 선물세트(3입)'는

롯데마트물 단독으로 9만9000원대에 특가 판매한다.

과일에서는 스테디셀러인 사과 선물세트를 주력으로 판매한다. 대표 선물세트로는 '중주 프레시인 사과(5kg 내외)'를 행사 카드 결제 시 1만원 할인한 각 3만9000원대에 판매한다. 사과·배, 사과·샤인머스켓 혼합 선물세트인 '중주 사과, 천안 배(5.3kg 내외)'와 '샤인머스켓, 사과(4.1kg 내외)'는 행사 카드 결제 시 각 8만5000원대, 6만9000원대에 선보인다.

1만원대 이하 가성비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비비고 토종김 5호'와 '동원 양반 들기름김 세트'를 각 9000원대에 판매하며, 10개 구매 시 1개를 덤으로 증정한다. '넛츠박스 매일견과세트 20봉'은 1만9000원대에 1+1으로 내놓는다.

이외에도 인기 건강기능식품 선물세트에 대해 1+1 프로모션을 제공한다. '한삼인 홍삼본 골드'와 '한삼인 홍삼진 키테이스틱'은 각 3만9000원대, 5만9000원대에 판매하고, '약사신협 6년근 고려홍삼액진'과 '약사신협 내몸에생발란스산삼배양근진액'을 각 3만9000원대에 내놓는다.

홈플러스 역시 이날부터 30일까지 설날 선물세트 본 판매를 진행하고 행사카드 결제 고객과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최대 50% 할인가에 판매한다. 행사카드 구매 시 금액대별 상품권을 증정하고, 5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과일 선물세트는 업계 최저가 수

준으로 준비했다. 대표적으로 '샤인머스켓+망고 세트(각 1입, 4입)'는 4만9000원대에, '프레시안 세척사과 세트(15입)'은 3만9000원대에 마련했다.

한우 선물세트는 고객 선호도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세트를 꾸렸다. 매 명절마다 큰 수요가 있었던 '농협안심한우 1등급 갈비 세트'와 '농협안심한우 정육갈비 혼합세트'는 각각 20만원, 15만원대로 지난 설 명절과 같은 가격을 유지했다. '농협안심한우저탄소1++No.9등급프리미엄 세트'는 30% 할인한 71만2000원에 선보인다. 합리적인 가격의 수입육과 양념육 선물세트 '미곡산 1855 블랙앵거스 세트'는 21만원대에 마련했으며, '호주정정우 블랙앵거스 정육 세트'는 9만원대에 마련했다.

베스트셀러 와인·위스키도 특가에 전개한다. 와인은 '까시어로 리저브 까베네쇼비뇽+멜롯(각 750ml)'을 5만9000원대에, 위스키는 선물용으로 인기가 많은 '조니워커 블루 밴디 에디션(750ml)'을 36만원대에, '발렌타인 17년(700ml+디켄터 1EA+온더락 글라스 1EA)'을 12만원대에 만날 수 있다.

실속형 선물세트인 김·육포 선물세트의 경우에는 10+1 행사 등을 진행한다. '대전김 곱창 도시락김 54봉 세트(4g\*54봉)'는 2만4000원대에, '동원 들기름김 세트(4g\*18봉)'와 'CJ 비비고 토종김 5호(4g\*6봉, 3입)'는 9000원대에 제공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 광주지역 유통 농산물 97.7% 잔류농약 '적합'

지난해 거래·유통 4309건 검사  
부적합 97건 2527kg 압류·폐기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유통된 농산물의 97.7%가 잔류농약 허용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각화 농산물도매시장과 대형마트·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거래·유통된 농산물(총 4309건)의 잔류농약 345종에 대해 검사한 결과, 97.7%인 4212건이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충족했다.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7건(2.3%)으로, 총 2527.1kg이 압류·폐기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들깨잎, 무잎, 상추, 열갈이배추 등으로 확인됐다. 잔류농약 성분은 포레이트, 이프로벤포스, 디니코나졸 등 50종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식품위생

법, 농산물품질관리법 등에 따라 전량 압류·폐기하는 등 시중 유통을 차단한다. 또 생산지 관할기관에 통보해 도매시장 출하 제한, 과태료 부과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정현철 광주보건환경연구원장은 "시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통 경로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 현대차, 전기차 통합 관리 'EV 에브리케어' 출시

점검 횟수 확대·화재 안심 프로그램

현대자동차가 전기자동차(EV) 생애 주기 맞춤형 통합 케어 프로그램 '2025 EV 에브리케어'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2월 'EV 에브리케어' 서비스를 처음 도입한 후 같은 해 9월 혜택을 강화한 'EV 에브리케어+(플러스)'를 선보인 데 이어 또 한번 혜택과 보장을 강화하며 전기차 고객의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2025 EV 에브리케어는 △블루 안심 점검 서비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 △긴급충전특약보험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 등의 혜택을 강화한 것이 특징으로, △충전 크레딧 또는 충전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혹은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선택한 하나를 제공하는 'EV 구매혜택' △신차 교환 지원 △일반 부품 보증 연장 및 바디케어 서비스 등의 기존 혜택도

포함한다.

먼저 블루안심 점검 서비스는 기존 8년간 총 8회 제공했던 안심 점검 서비스를 2회 확대해 10년 간 매년 1회, 총 10회의 안심 점검을 제공하며 보다 안전한 전기차 운행을 지원한다. 전기차 화재 안심 프로그램은 전기차 화재로 제3자 피해가 발생하고 발화 차주의 자동차 보험 대물 배상 한도액이 초과할 경우 최대 100억원의 손해액을 지원한다.

긴급충전특약보험은 보험사와 연계해 자동차 보험 갱신 및 신규 가입 시 적용할 수 있는 특약으로, 전기차 방전 우려가 있을 때 연 2회 15kWh의 긴급 충전을 제공한다.

잔존가치 보장 대상 확대는 EV 차량 출고 후 2~3년 내 중고차로 매각한 뒤 다시 현대차를 새롭게 구입할 경우 기존 EV 구매 가격의 최대 55%를 잔존가치로 보장해주는 '잔존가치 보장서비스'의 대상을 기존 개인 고객에서 개인사업자 고객까지

확대할 것이다.

이밖에 현대차는 기존 제공하던 EV 에브리케어의 주요 혜택은 유지한다. 고객은 EV 구매혜택을 통해 EV 충전 크레딧(80만원 상당) 또는 충전전기 지원(설치비 포함) 혹은 EV 전용 타이어 2본 중 1개를 선택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차 교환 지원을 통해 전기차 출고 후 2년 내 전손 시 손실액뿐만 아니라, 신차 등록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년/2만km 내 차체의 외관 손상을 보장해주는 '바디케어 서비스' 및 일반 부품에 대해 2년/4만km 내 보증 연장을 제공하는 '워런티플러스 서비스'도 운영된다.

한편 현대차는 2025년 1월 중 아이오닉 5(N 포함),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 등 전기차를 계약한 뒤 2월 내 출고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인기 가전제품 및 세차 키트를 제공하는 '2025 EV 얼리버드 이벤트'도 진행한다. **박소영 기자**

## 재테크 칼럼

## 안전자산 '금' 분산 포트폴리오로 투자해야

지난 2년간 국제시장에서 금값은 투자자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상승을 보여주었다. 2024년 한해만 해도 약 28%가 올랐다.

흔히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취급된다. 인플레이션, 불경기, 불안한 국제정세 등의 헛지(위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도 투자자들에게 인식되어 있다. 특히 지난 2년간은 국제적인 인플레이션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불경기 등이 겹쳐서 금값이 오르기엔 좋은 환경이 만들어

졌다. 중국을 선두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금을 사들인 것도 금값 상승을 부채질했다.

2025년은 미국의 경제가 그동안의 호황을 마감하고 침체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경제 전문가가 많다. 만약 미국에 불황이 온다면 금값은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 금과 달러는 국제통화의 패권을 놓고 다툼을 계속해 왔다. 1971년 닉슨이 달러당 금대환제를 없애버리면서 경장이 시작됐는데 굳이 두 자산 중에 어느 것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금분위제를 없애버린 달러가 국제 기준통화로 완전하게 자리 잡은 것을 보면 전통적인 통화가 준이었던 금의 위상이 빛이 바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하지만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의 위치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서 금값이 큰 폭의 상승을 보이고 그 상승의 원인에는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입이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기준통화로 달러에 대한 불안이 작용하고 있는 것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같다. 몇 년 전부터는 전통의 금이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비트 코인의 도전을 받고 있지만 비트코인이 상승하는 중에도 금 역시 동반 상승하는 것을 보면 금의 추락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본인의 보수자산 포트폴리오에 금을 배분해서 매입해 놓는 것도 투자 방법이다. 금을 매입할 때는 소위 금은방은 피하는 것이 좋다. 10%의 부가세에다

5%이상의 수수료 부담도 있고 보관에 대한 고민도 뒤따른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증시에 금 ETF가 있어 보관에 대한 고민은 덜 수 있으나 운용사 수수료에 매도시 세금이 부과되니 이 역시 손해다. 정부는 금 거래시에 부가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한국거래소(KRX)에 부가세 면제를 해주면서 금 거래가 가능 하도록 하고 있다. 각 증권사에서는 금 관련 계좌를 개설하면 만원 단위 소액으로도 KRX에서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수수료도 저렴하고 부가세와 금 보관에 대한 걱정도 덜 수 있는 좋은 금 투자 방법이다.